



현지화된 베트남 스타일 한식 프랜차이즈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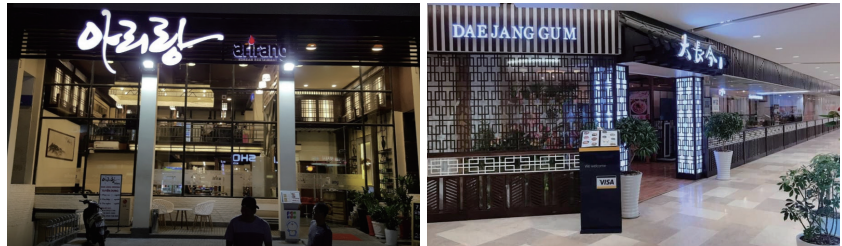
한류열풍, 현지화된 베트남 스타일 한식까지 등장!

여론조사기관 Q & Me이 '1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 917명의 베트남인 중 36%가 '한식을 좋아한다', 32%가 '한식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출처 : qandme.net

이렇듯 한류의 영향으로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커지면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의 한식당

출처 : Arirang PMH, facebook.com/DaeJangGeum

또한 일부 현지 외식업체에서도 한식의 인기를 좇아 자체 한식 모티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설립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베트남 외식기업 운영 한식 프랜차이즈 식당

Key Point

한류 열풍으로 인해 베트남의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로컬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한식당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한식당은, 가격에 민감한 현지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일반 한식전문점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하는 등의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전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출처 :

- 1 <http://kingbbq.com.vn/vua-nuong-han-quoc-da-chinh-phuc-hari-won-nhu-the-nao/>
- 2 <https://kenh14.vn/nguoi-han-quoc-thich-thu-khi-thay-kimbap-duoc-bien-tau-o-viet-nam-con-doi-nhap-khau-de-thuong-thuc-20200718141005762.chn>

베트남화 한식 프랜차이즈 현황

베트남의 대표적인 한식 프랜차이즈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외식기업인 골든게이트(Golden Gate)의 '고기하우스', 레드선(Red Sun)의 '킹BBQ', '서울가든' 등이다.

두 기업 모두 베트남의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업계 1, 2위를 앞다투며 경쟁하고 있다.

출처 : ggg.com.vn, redsun-iti.com.vn



◀ 골든게이트 레스토랑 체인

▲ 레드선 레스토랑 체인

골든게이트 그룹은 '05년 설립되어, 현재 총 45개의 시에 400개의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식 모티브 프랜차이즈인 '고기하우스'는, 베트남 38개의 시에 117개의 체인점이 있다. 고기하우스를 제외한 주요 프랜차이즈로는 'Kichi-kichi', 'Sumo BBQ' 등이다.

'고기하우스' 및 기타 골든게이트 체인점

은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에 출점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호치민시 시내의 주요 쇼핑센터에서 골든게이트 식당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 정도로 핵심상권을 점령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유명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 호치민 시내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고기하우스



▲ 고기하우스 전속모델 래퍼 선동(Son Tung)

출처 : facebook.com/gogihouse, gogi.com.vn

레드선 그룹은 '08년 설립되었으며, 베트남 전역에 291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식 모티브 프랜차이즈인 서울가든, 킹BBQ는 각각 5개, 88개의 체인이 있다.

두 식당 모두 한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한글을 활용한 내부 조형 인테리어 및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한인 연예인을 전속모델로 동원하는 등이다. 서울가든과 킹BBQ 외에도 Khao Lao, Sushi Kei 등의 타국 음식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다.



▲ 한글 활용 내부 조형 인테리어

출처 : Pasgo.vn, kingbbq.com.vn



▲ 킹BBQ 전속모델 가수 하리원(Hari Won)

맛도 가격도, 현지화 된 한식!

이러한 한식 모티브 식당은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베트남 스타일로 변형한 한식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민감도가 높은 현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출처 : Facebook.com/gogihouse, Foody.vn

